

전북대 산학협 박종관 매니저, 중기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사업단 박종관 매니저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에서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 매니저는 2018년 공학컨설팅센터에 입사해 전북대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우수성 도출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전북대가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R&D사업과 맞춤형 기술과제지원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등 최근 5년간 총 10개 사업의 권역별 주관기관에 선정돼 총 100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47건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마케팅 및 43건의 해외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기업 신규고용 196명, 과제 관련기업 매출 188억 달성 등에도 기여했다.

박종관 매니저는 "대학의 우수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교류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차동의 FM 모닝쇼 30주년 기념콘서트 '동행'

28일 소리문화전당 야외공연장서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활기찬 전북의 아침을 열어주는 김차동의 FM 모닝쇼가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8일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전당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재조명하는 지역맞춤형 섹션인 소리연지리지의 일환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전북 방송 문화인으로 지역을 대표하며 라디오계의 다시는 없을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리빙 레전드 방송인 김차동의 업적을 재조명한 콘서트이다.

김차동이 1993년 10월 첫 방송 이후 30년 동안 '김차동의 FM 모닝쇼'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단일 DJ의 단일방송 30년은 아침방송과 지역방송을 통틀어 최초이다.



전북 지역 라디오의 최고 청취율을 자랑하는 김차동은 열악한 지역방송의 여건에서도 특유의 성실함과 부단한 노력으로 라디오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슈퍼 방송인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FM모닝쇼를 진행해 온 김차동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진성, 김용민, 박강성, 김현정, 김태현 등의 축하 공연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모닝쇼와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매일 아침을 함께한 도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FM 모닝쇼 김차동은 3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으로 "지난 30년 동안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닝쇼를 사랑하는 애청자들과 도민여러분들의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 덕분"이라며 "이번 콘서트에서 애청자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푸른소리합창단, 도민의 날 축하공연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푸른소리합창단은 지난 25일 제43주년 전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맞아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도민의 단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도내 기관·단체장 전북도인대상 수상자, 출향도민 및 기업체 대표 등 전북도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립국악원의 창극단과 관현악단의 공연, 도민헌장 낭독, 자랑스러운 전북도인대상 시상, 기념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푸른소리합창단은 국민에게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전북도민의 노래를 불러 행사를 빛냈다.

김신철 교장은 "전북 도민의 날의 행사에 본교 합창단이 참여해 자랑스럽다"며 "노래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푸른소리합창단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관영 도지사, 전주장학숙 입사생 대상 특강

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은 25일 저녁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초청해 전주장학숙 입사생과 총동기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여, 전북의 든든한 지킴이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강을 통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하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북의 청년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지사로서 전북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나기 위해 전북에서 취업하고 정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과 함께 장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사생들도 졸업 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부 전주장학숙총동기회(회장 조승현) 선배 멘토링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다양한 도전의 경험을 나누며 장학숙에서 생활하는 입사생과 전북발전을 위해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전주장학숙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행사를 준비한 문향금 관장은 "김관영 지사의 특강을 통해 입사생의 전북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사대부고 영어동아리, 호주서 현장체험학습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소속 영어동아리(BEENE) 학생 16명과 인솔교사가 최근 호주에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사대부고 학생들은 이번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에서 다민족 국가인 호주 시드니 일대를 탐방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돌아왔다. 학생들은 국제교류수업과 연계해 호주 현지에서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련이 있는 교육·의학·공학·경영의 세부 주제를 세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영어동아리(BEENE) 학생과 인솔교사는 이번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계기로 지난 2018년부터 교류해 왔던 호주 시드니의 Burwood Girls High School과 자매결연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학교는 향후 5년간 자매학교로서 학생 교류, 교육과정에 대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호주 Burwood Girls High School에서 전주사대부고를 방문해 한국문화와 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제교류수업에 참여한 동아리 대표 최혜승 학생(2년)은 "다민족 국가인 호주에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일상을 보내며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진로를 고민하며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병선 동아리 담당 교사는 "인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순창군, 2023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개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회장 한태상)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순창군 향토회관 및 장애인체육관에서 2023 순창군 농업 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림피스킨병 발병으로 가족이들이 제한된 소시육 농가를 제외한 농업경영인 가족·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신영이 순창군의회의장, 장순창군의회의원, 지역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표창대 및 표창장 수여, 기념사,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가 직접 행사에 참석해 특강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최영일 군수는 강연에서 민선 8기 순창군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1시간에 걸쳐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 군수는 "현재 순창군은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 농가소득 기반 지원, 생산경비 절감 등을 목표로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생활관 야간 화재대피 훈련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생활관 입주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 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생활관 야간 화재대피 훈련은 위기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자동화재 경보, 비상구 표시, 출입문 폐쇄 여부 및 동로 확보, 소방시설 관리 상태 점검, 취약지역 점검 상황 보고 순으로 이뤄졌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평소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장수사진 촬영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입암면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어르신들의 삶이 온 인생을 담아드리고 남은 인생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도록 전문사진 작가와 헤어·메이크업 전문봉사자들이 참여해 촬영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생애 아름다운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게 돼 뿌듯하다"며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에 참여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있어서 많이 외로했는데, 봉사자들이 곁에 단장을 해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오랜만에 새 신부가 된 거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언야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금동, 춘향로타리클럽과 협약 체결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26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남원 춘향로타리클럽(회장 김미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품 지원 △상호 각종 활동 및 행사 공동 개최 협조 △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윤기 금동 동장은 "지역민을 위해 늘 봉사하는 춘향로타리 클럽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역민들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직원 30여명 '줍깅' 실시

전주교육대학교 직원 30여 명이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줍깅' 자원봉사는 지난 7월부터 매일 1회 부서별 최소 행정인원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대학가 주변과 전주천 산책로를 따라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박병춘 총장은 "일상생활 속 쓰레기 분리배출, 무단투기 예방 등 우리의 소중한 노력이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